

# 일제 토지 수탈 한 눈에...장성 토지역사관 눈길

조선총독부 제작 삼각측량명세표 등 전시 전국 주요 지형지물·산높이 등 상세 측정

일제의 토지수탈 현장의 소중한 사료를 볼 수 있는 이색전시관이 있다. 장성군 종합민원실에 있는 '토지(지적)역사관'이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토지역사관에는 부동산제도의 역사, 부동산대장 변천사, 측량기구, 사료 등이 전시돼 있다. 자본주의 부 축적의 기준인 토지의 역사를 근대사에서 현대사까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 곳에는 일본제국주의가 1910년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시행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용했던 측량기구, 거리측정기구, 토지조사부, 측량명세표, 각종 대장, 도면, 서장 등이 전시돼 있다. 사세청(현 국세청)에서 장성군으로 이관된 사료를 서고에 보관하다가 토지역사관을 설치,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첨단 장비였던 트랜시트, 거리 측정기구로 사용한 대줄자, 전국을 그물망처럼 엮어놓은 삼각측량명세표 등은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삼각측량명세표는 일제의 치밀한 토지 침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00년 전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인쇄본으로, 일제가 측량기준점을 일본으로 삼아 대마도, 거제도, 절영도를 삼각망으로 구성한 후 평양·영산포 등 전국 13개 주요 지점에 측량 기준점을 설치해 전국을 그물망처럼 엮었다. 이를 토대로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뒤 토지를 강탈했다.

지금도 나주 영산포 영산강변에는 일제가 설치한 '영산포 기선점'이 훼손되지 않고 원형대로 남아있다.

또 전국 주요 명산에 20km 단위로 표석을 설치해 좌표표를 수치화하는 등 주요 지형지물과 산높이 등

이 상세히 측정돼 있다. 일본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서울·평양·신의주까지 정확히 명중할 수 있도록 수치화돼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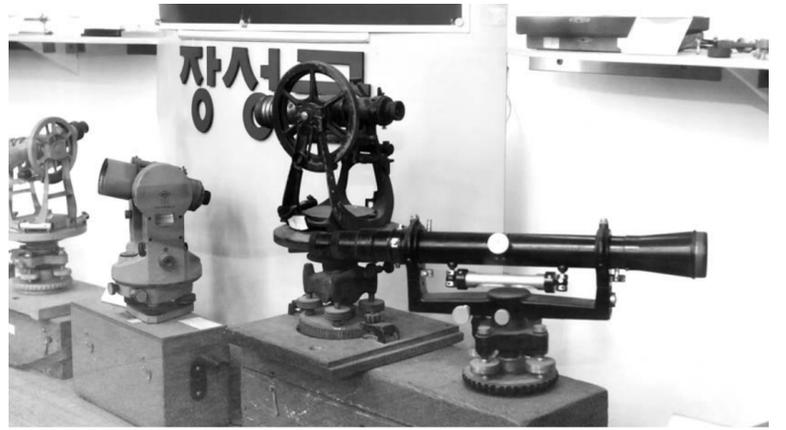
토지역사관에는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사진과 세부측량 사진, 토지·임야 대장 제작과정 등 자료가 많이 소장돼 있다.

장성군은 이같은 일제 잔재물인 지적·임야 도면을 청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면 정보화 작업을 실시했다.

이는 장성군 민원실이 '세계화 시범기관'으로써 정부 표창을 받는 계기가 됐다. 장성군은 이후 속성정보를 도형 정보로 전환했고, 최근에는 4차원 입체정보 시스템으로 선진화하고 있다.

장성읍에 사는 이은주 씨는 "군청 민원실을 찾을 때마다 토지역사박물관이 있어 어려운 부동산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루함도 달랠다"고 말했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 토지역사관에는 일제가 1910년대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시행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용했던 측량기구와 거리측정기구 등이 전시돼 있다. (장성군 제공)

## 500년 역사 나주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나주시·국립배연구소 등 6곳 협약 자문회의·현장조사 등 준비 착수

나주시가 500년 역사의 나주배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절차에 나선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청에서 지역 대표 특산물인 나주배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해 5개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호남원예고등학교, 나주배원예농협, 나주배연구회, (사)남도화연구소다.

기관별 장점을 살려 나주배 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보전관리, 활용사업, 홍보 분야를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국가가 보전하고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농업유산이다. 100년 이상 농업·농촌지역 환경과 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며 형성시켜온 유·무형의 농업자원이 해당된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농촌의 다원적 자원을 보전하고 이를 전승·활용하는 데 필요한 자원조사와 관리계획 수립,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국비 지원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다.

나주시는 지난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나주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신청하고 농업유산



나주시는 지난 24일 시청에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등 5개 전문기관과 '나주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제공)

자문위원회 회의와 현장조사 등이 포함된 지정 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전국 최대의 배 주산지인 나주 지역 배 재배 유래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1454년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주목의 토공물(土貢物) 목록에 나주배가 들어있다. 1871년 발간된 '호남읍지'에는 나주배를 임금에게 바친 진상품으로 기록했다.

근대화된 배 재배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인들이 나주 금천면에 만

삼길 품종 100그루 재배를 시작으로 신고, 금춘추 등 다양한 품종이 들어왔다. 1913년 송월동에 거주한 이동규는 대량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한 상업적 과수원을 처음으로 조성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100년이 넘는 근대화된 나주 배 농업은 2010년 지식경제부가 '배산업특구'로 지정할만큼 질적·양적으로 성장했다.

2019년 기준 나주지역 배산업 규모는 2192 농가 4만7952t 출하로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전통정원특구 담양, 국립한국정원센터 유치 총력

정원 자원 발굴·전시 "한국정원 산업화·세계화 기여"

담양군이 전국에 산재된 정원 자원을 발굴·전시하는 국립한국정원센터 유치에 본격 나섰다.

27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8년부터 국립한국정원센터 건립을 지역현안 사업으로 추진했다.

우리나라 정원산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인데다, 이를 발전시킬 체계적인 연구기반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하지만 국립시설이 아닌 지방시설로 운영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진척이 없었다.

국립한국정원센터가 건립되면 우리나라에 산재한 각종 정원 자원을 발굴해 전시하고, 정원 유형별 표준모델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한국정원의

산업화·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새로운 지역 소득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한국정원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담양의 대표 관광명소인 죽녹원은 지난해 10월 지방정원으로 등록됐으며, 올해 5월 전통정원특구로 지정되는 등 담양군은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최 군수는 "담양은 별서정원과 누정, 집종 분포가 있어 정원 관련 사료나 연구를 위한 정원센터 건립의 최적지"라며 "열악한 지방 예산을 감안해 한국정원센터가 국립시설로 담양에 건립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누정문화를 꽃 피운 담양군이 국립 한국정원센터 유치에 도전한다. 지난해 10월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담양 죽녹원. (담양군 제공)

## 강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도암분점 신축

12억5000만원 들여 연말 준공

강진군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원거리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도암분점을 신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도암면 향촌리에 연면적 543㎡ 규모의 농기계임대사업소 도암분점 설치를 위해 지난 6월 실시시설계약 등 사전준비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간다. 임대농기계 확보도 이용 빈도가 높고 농가 선호도가 높은 장비로 구입할 예정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지난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작전분점에 이은 이번 도암분점 설치에 민선 7기 공약 사업이다.

강진군은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2차 감면(50%)을 연말까지 까지 연장한다. 임대료 감면을 통해 영농현장 농기계 사용 촉진으로 일손 부족 해결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홈페이지,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